

김관영 도지사, “전북 첫 걸음, 도전해야”

미국 ‘CES 2024’ 참가 전북기업 공동관 방문 응원 메시지… 대표들과 현장 환담하며 1대1 조언

미국 라이베거스에 개최되고 있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현장을 방문 중인 김관영 도지사는 9일(현지 시간) 현지 행사에 참여한 전북 기업체 대표들과의 자리에서 “전북의 첫 걸음인 만큼 잘 해주셔야 한다”며 힘찬 도전을 응원했다.

전북도가 CES 참가 사상 첫 개설한 전북관에 비나텍, 테라리츠 등 도내 기업체 8개 사가 참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CES에 먼저 참여한 여러분의 활동이 중요하다. 전북의 첫 걸음인 만큼 잘해야 한다. 그래야 제2, 3의 도전업체가 나오는 것 아니겠냐”며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양봉 관련 신기술 업체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카자흐스탄은 격이 다르다. 다른 곳이 1인당 GDP 5천불 이하라면 카자흐는 1만불 수준이다.

우리 국제협력진흥원이 카자흐스탄 대사를 지냈다. 현지 마트 유통과 관련해서 전북과 협약을 맺은 고려인 출신 CEO가 있다. 그 분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을 아끼지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IT·가전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를 찾은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출장단이 베네치안 엑스포 전시관에 위치한 전북 공동관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않았다.

유전자 등을 활용한 돼지 저울 업체에 대해서 “전북에서 출발했으니 전북 축산업계와 협력해 시너지를 만드는게 중요하다. 전북도도 필요한 부분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화물차 등의 이동 상황을 추적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물동량이

어느정도 되는 군산관련 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A사 대표는 “기업의 생리를 잘 아는 전북테크노파크(TP) 원장이 오셔서 기업과의 친밀도가 높아졌고 현장과의 거리감도 많이 좁혀졌다”고 화답했다.

전주시 사절단을 참석한 이기동 전주시의장은 “도지사께서 기업 하나하나 1대1 코칭을 할 정도로 이해도가 높은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면서 “평상시에 관심이 높아 명쾌하고 시원스럽게 해답을 주시는 것에 놀란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김재훈 기자

농진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추진 상황 점검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진안농기센터서 현안 청취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10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이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현안을 청취했다.

이 사업은 산물 예방, 농업 부문 자원순환 탄소중립 달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은 민관합업으로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을 운영해 농작물 수확 후 남은 줄기나 파수 잔가지 등을 수거

후 파쇄해 퇴비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권철희 국장은 파쇄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실천 운동 계획 등을 살피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이나 품목별 교육과 연계해 농업 부문 미세먼지 저감 방안과 파쇄기 안전 사용 방법 등도 홍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농진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10일 진안군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현안을 청취했다.

건협 전북도회,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에 감사패 수여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9일 새만금 국가산단 10조원 투자 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에게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재철 회장은 “이번 새만금 국가산단 10조 투자 달성은 전라북도 산업구

조의 중요한 모멘텀으로서 지역경제의 새로운 대도약을 이끌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활성화 되고 새만금 내 공공·민간 분야 사업에 전북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보다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자재·장비 등 연관 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10조원 투자유치를 발판으로 다수의 지역업체가 새만금사업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와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길러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고, 친(親)기업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새만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의 속도와 추진력을 높이는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건협 전북도회는 지난 9일 새만금 국가산단 10조원 투자 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김경안 청장에게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여구 국민연금공단 북지이(가운데)가 문치호 국민연금나눔재단 이사(왼쪽),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장(오른쪽)과 기념 촬영 하고 있다.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전달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수급아동 총 500명 3억원 지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후원금을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 후원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복지비를 근거로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아동자립형성 지원사업이다.

공단은 국민연금나눔재단(이사장 김신열)을 통해 유족연금 수급아동 500명에 12개월 동안 매월 5만

원씩 총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이 디딤씨앗통장에 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이 10만원이 매칭돼 매월 15만원이 적립된다.

이렇게 쌓인 적립금은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학자금, 취업 훈련, 주거 마련 등 자립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현 이사장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어려움을 극복 건실한 청년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농촌진흥법 개정안’ 공포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법적 근거 마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과 ‘농촌진흥법’의 일부개정법률이 최근 공포됐다.

10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치유농업법 개정법률(1월2일 시행) 내용에는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추진’ 사항을 치유농업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여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와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농진청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사업 추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치유농업과 사회복지사업 간 제도적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법 개정법률(4월 3일 시행, 코피아 관련 내용은 7월3일 시행)에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코피아)과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

했다.

농진청이 2009년부터 전 세계 22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피아 사업 또는 센터 운영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됐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기존 ‘농촌진흥법’의 일부 불일치한 사항도 개선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규범 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연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연구개발 사업 관련 용어,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 절차, 기술료 징수 등 서로 다른 부분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에 맞춰 정비했다.

이번 개정에는 지방연구직·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농진청 소속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농업인 조직 육성 주체를 농진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했다. /김옥기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